

★ 중앙교회 구역 모임(13-39) ★

※ **교제와 축복** /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모임을 위한 기도** / 대표 기도자

※ **경배와 찬양** / 220장(구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7장(구283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1. 삶 나누기

포로 수용소에서 이루어진 성만찬

1966년 북베트남 상공에서의 공중전이 실패로 돌아간 후 포로로 잡혀간 미군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모스 부호를 이용해 서로의 이름과 군번을 알아냈으며, 성경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가르쳤다. 어느 날 독감병에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왔다. 매일 아침 벽을 타고 들려오는 신호를 익힌 그는 서투른 솜씨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971년 봄, 수용소 당국은 포로 세 명에게 성경을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필사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 동안 레이는 산상수훈을 넘어 훨씬 더 많은 구절을 베껴 쓸 수 있었다. 레이가 그 소중한 성경 구절을 감방에 갖고 올 때마다 동료들은 벽돌 가루로 만든 잉크와 깃대 펜으로 배급받은 휴지 위에 성경 말씀을 옮겨 적었다. 부활 주일, 탐 커티스 대위는 예배를 소집했다. 누군가 커티스에게 전날 배급에서 떼어놓은 빵 몇 조각을 건넸다. 그리고 소중하게 남겨둔 미역국 잔이 돌려졌다. 커티스가 잔에 대한 말씀을 암송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포로들은 자신들의 찢어진 고막, 빠진 손톱에서 흐르는 피, 임시방편으로 둘러싼 붕대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보았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생각했다. 누군가 조용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렀다. 커티스가 잔을 입에 대는 순간 울음이 터졌다. 극심한 역경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1) 위 이야기에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2. 말씀나누기

설교 : 나를 기념하라 (본문 / 고린도전서 11:23-29)

1. 주의 만찬(Lord Supper) / 주님이 주인되고 음식이 되시는 식사.
2. Eucharist 감사 / 감사함으로 식사가 성찬이 되고 은혜를 먹게 되는 것.
3. Communion 참여 / 밥상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으로 예수님과 교제에 참여하는 것.
4. Sacrament 성례전 /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 재임을 소망하며 살기로 결단한 식사.

나눔1. 성만찬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 읽으세요.(마26:26-29, 막14:22-25, 눅22:14-20)

나눔2. 주님의 만찬과 유월절 식사의 공통점을 나누어 보세요.(고전11:23)

나눔3. 자기의 만찬과 주의 만찬은 어떻게릅니까?(고전11:18-21)

나눔4. 주의 만찬을 하면서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고전11:24-25)

나눔5. 고전11:26절은 주의 만찬을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3. 은혜나누기

- 1) 성찬이 주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2) 날마다 우리의 식탁이 은혜와 거룩함을 경험하는 식탁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 3) 중보기도
 - (1) 나라에 안정과 평화를 주시고 북한에도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 (2) 교회 백주년에 주신 비전을 이루어 주소서. 1만성도, 비전센터건립.
 - (3)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의탁하는 제자되게 하소서.
 - (4) 전도의 문을 여셔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소서.

4. 사역나누기

- 1) 교회사역안내
 - **중앙성경대학 개강** / 9월8일(주일) 오전9:30, 장소: 명직예배실 , 주보참조
 - **중앙알파코스 17기** / 매주 저녁 7:00 장소 :식당 및 성봉예배실
- 2) 찬송 / 찬213(구348) 나의 생명 드리니
- 3) 헌금
- 4) 주기도